고교생 의대 진입문 넓어진다

전남대·조선대 등 27대大 의·치대 전환…2013년부터 입학정원 늘어

의대 교육 단일체계에서 지난 2009년 의학전문대학원과 의대의 '병행교육 시스템'을 갖춘 전남대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완전 전환'한 조선대가 다시 의대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지역 고교수험생(재수생 등 포함)들의 의대 진입문이 넓어진다.

특히 조선대는 전남대와 달리 의학전문대학원과 의대를 병행하지 않고 대학원 체제만을 운용, 4년제 대학 졸업자만이 입학할 수 있어 지금까지 수험생들의 응시 기회가 아예 없었다.

전국 27개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치전원)이 의·치과대 체제로 되돌아가기로 결정하면서 현재 고교 2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의·치대 입학정원이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 방침에 따라 학제를 의·치전원에서 의·치대로 변경한 27개 대학의 정원 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증가 규모는 학교별 변경 시점에 따라 다르다. 2013~2014학년도에 179명, 2015~2016학년도에 899명이 증가하며 2017학년도부터 대학 자율로 결정한다.

전남대 총 정원은 125명으로 동일하지만, 2013년부터는 의대 정원을 62명에서 88명으로 늘리며 의대로 완전전환되는 2015년부터 125명을 선발한다. 전남대 치전원은 치대로 전환하지 않고 전문대학원 체제를 유지한다.

조선대는 의대 체제 전환에 따라 2015년 88명 모집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정원인 125명을 선발한다. 또 조선대 치대도 치전원에서 원상복귀함에 따라 2015년 28명, 2017년 40명(정원)을 모집한다.

조선대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운용하면서 입학생의 상당수가 타 지역 대학 졸업생이 많아 우수한 고교 졸업생 등 지역 인재를 유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북대도 의전원·치전원 체제에서 의대·치대로 되돌아간다. 전북대 의대는 2015년 77명· 2017년 110명(정원)을, 치대는 2015년 28명·2017년 40명(정원)을 각각 뽑는다.

이와 함께 연도별(2013·2015·2017학년도) 입학정원은 ▲서울대 의대 95명·135명·135명 ▲고려대 의대 74명·106명·106명 ▲연세대 의대 77명·110명·110명, 치대 42명·60명·60명 ▲성균관대 의대 28명·40명·40명 ▲한양대 의대 77명·110명·110명 등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올 여름 일조시간 가장 짧았다

광주·전남 373.5시간 '역대 최소'

올 여름 광주·전남의 일조시간은 지난 1973년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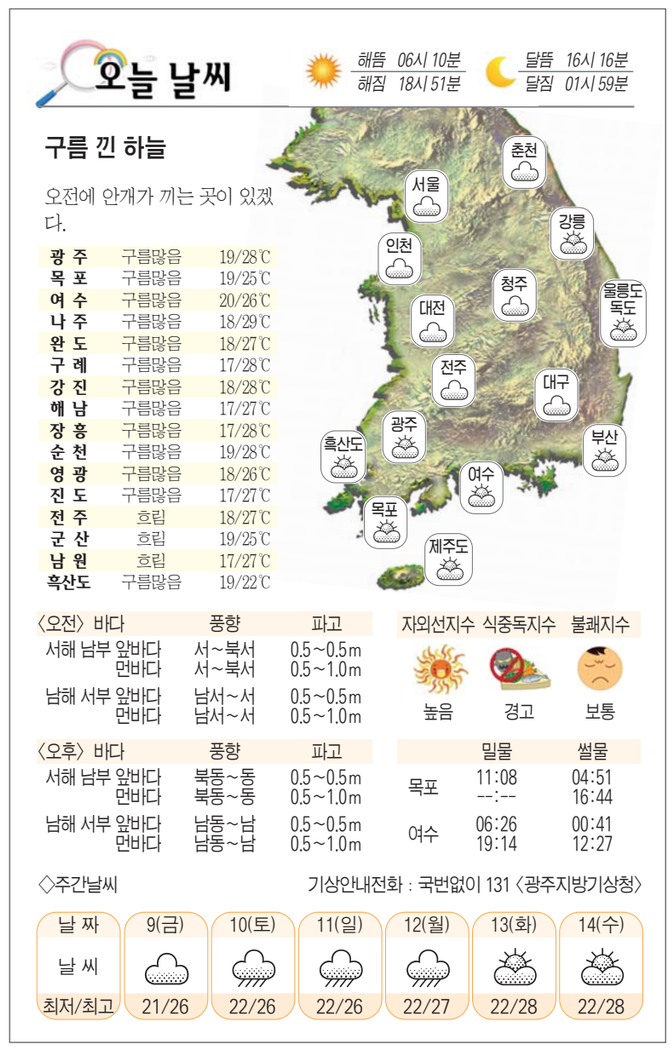
7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011년 여름철(6~8월) 기상 분석자료'에 따르면 올 여름 광주·전남의 일조시간은 373.5시간이었다.

이는 평년(531.5시간)에 비해 158시간 적고, 최근 10년(494.5시간)에 비해서도 121시간이 적은 것이라고 광주기상청은 설명했다.

반면 올 여름 광주·전남의 열대야 일수는 12.7일로 최근 10년(7.8일)에 비해 5일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동안 강수일수 역시 43.7일로 최근 10년(39.5일)보다 약 4일 많았다.

이 같은 올 여름 광주·전남 기상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고온다습한 기류가 공급되면서 덥고, 비가 오거나 구름 낀 날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광주기상청은 분석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추석 기다리는 과일들 추석연휴를 사흘 앞둔 7일 광주 서부농산물시장 공판장에 경매를 앞둔 과일이 가득차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초·중 9곳 주 5일수업 시범운영

전남선 40개校

광주지역 초·중학교 9개교가 내년 초 전면 도입 예정인 주 5일 수업제 시범학교로 운영된다. 전남 지역에서는 모두 40개 학교(초·중)가 실시 중이다.

광주지역 학교는 봉주·불로·삼육·율곡·경양·광주교대 부설초를 비롯해 운암·영천·동성중학교이다.

이들 학교는 5일 수업제에 따른 맞벌이 부부 가정 자녀의 토요일 교육 공백을 줄이기 위해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원어민 토론수업, 돌봄교실, 스포츠데이, 우리악기 배우기 등이다.

지난 3일 첫 시행된 토요 프로그램에는 9개 시범운영 학교 전체 학생 7455명 가운데 1382명(18.54%)이 참석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주 5일 수업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토요 프로그램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학교는 주5일제 수업제의 수업일수를 확보하기 위해 방학기간을 일정 부분 줄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

전남대·조선대 의사고시 합격률 전국 평균 밑돌아

전남대와 조선대 등 광주지역 의과대학의 최근 3년 평균 의사국가시험 합격률이 전국 평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3년간(2009~2011년) 대학별 의사국가시험 평균 합격률 현황에 따르면 조선대는 89.8%, 전남대는 92.6%였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합격률(92.8%)을 밑도는 수치다. 3년 평균 합격률 기준으로 국내 대학 50곳 가운데 조선대는 45위, 전남대는 32위였다.

/채희종기자 chae@

바다에서 기상정보 음성으로 듣는다

이달말부터 서비스

이달 말부터 우리나라 연근해는 물론 동남아 지역 해상에서도 우리나라 기상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해양 기상정보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육상 기상정보 서비스에 비해 취약했던 해양 기상정보 서비스가 제공되면 어민 등 해양 관련 종사자들의 사고 예방은 물론 생업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달 말부터 소형선박 등을 위한 해양 기상방송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빠르면 연내 정식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해양 기상방송은 무선 팩스(FAX) 주파수 중 활용가치가 높은 주파수를 음성주파수로 전환해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특보와 기상통보 등을 24시간 365일 실시간 음성으로 서비스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소형 선박은 이미 보유중인 싱글사이드밴드(SSB) 수신기 등을 활용해 별도 경제적 부담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